

끝없는 법정 싸움... 지치는 어민·병드는 갯벌



이사하야 간척사업으로 황폐화된 갯벌 주변을 한 어민이 걸어가고 있다. 그 뒤로 이사하야 방조제와 수문이 보인다. /나가사키(규슈)=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라지는 전남 **리아스식 해안**

〈7〉 일본 이사하야만(하)

이사하야 간척 사업 전후로 어획량이 급감하자 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동에 나섰다.

간척 사업으로 이사하야만에서만 3000ha(어민 측 주장)의 갯벌이 사라지면서 각종 어패류의 산란 장소가 사라져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를 상대로 간척 사업 완료 전에는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간척 사업 완료 후에는 수문 개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수백척의 배를 몰고 방조제 앞으로 몰려와 수문 개방을 촉구하며 선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연을 회복하면 바다와 갯벌이 되살아나고 어민들 삶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에서다.

어민들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02년 시

작했다. 사가현 지방재판소에 방조제 건설 등 간척사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는 나가사키·사가·후쿠오카·쿠마모토 등 이사하야만이 포함된 아리아케해(有明海) 주변 4개 현 어민들이 참여했다.

어민들의 요청은 1심에서 받아들여져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소송을 거듭하면서 지난 2007년 11월 이사하야만에는 7km 짜리 방조제가 결국 완성됐다.

방조제 완공 이후 어민들은 방조제의 수문(8개)을 열어달라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지난 2008년 6월께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지난 2010년 12월 수문을 개방해달라는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3년 안에 5년간 수문을 열고 닫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내용의 2심 판결은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지난한 소송을 거듭해야 했지만, 결국 어민들의 바람대로 방조제 수문이 조만간 열리고 갯벌과 바다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복병은 뜻하지 않은 곳에 두어 나왔다.

간척지 농민 460여명 등이 지난 2011년 4월 '수문을 개방하라'는 판결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 낸 것이다.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담수호에 섞이게 되면 농사를 망쳐버린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번엔 농민들 손을 들어줬다. "갑문을 열면 바닷물이 들어와 농업 활동이 불가능해지는데, 갑문 개방으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크지 않

다"며 이전 판결을 뒤집고 수문을 열지 말라는 농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이사하야 방조제 수문 개방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어민, 농민 등 3자는 계속해서 법정공방을 이어갔고, 올 1월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어업인, 농민, 정부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다소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법정 다툼과 별개로 어민들은 수시로 배를 몰고 방조제 앞으로 몰려와 수문 개방을 요구하는 선상 시위를 꾸준히 열고 있다. 시위에는 이사하야만 주변 나가사키·사가·후쿠오카·쿠마모토 등 4개 현 어민들이 참여했다.

이사하야만에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바다생물들의 자궁 역할을 하는 갯벌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아리아케해의 조류 변화까지 불러오면서 어족자원이 황폐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갯벌에서 넘쳐나던 키조개, 정동어가 사라지다시피 했고 아리아케해에서 잡히던 물고기의 양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간척사업에서 비롯됐으며 어민들은 수문 개방을 위해 선상시위와 법정 다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사하야시청 관계자는 "어업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의 내용이 일부 공감 가는 측면은 있으나, 내용에는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 "방조제 수문 개방의 경우 농민과 정부, 어민 측 입장이 다르고 재판부 또한 매번 결과를 달리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끝없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나가사키(규슈)=김형호기자 khh@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연 복원될 때까지 투쟁 멈출 수 없다”

사가현 주민 노부키요씨



“(방조제) 수문을 열면 회복된다. 바다와 갯벌이 살아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투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23일 사가현(규슈)에서 만난 히라카다 노부키요(64·사진)씨는 “간척사업으로 망가진 자연은 수문을 열게 되면 상당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문 개방을 위한 해상 시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법정 다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믿음에서 비롯됐다”면서 “수문 개방과 바다, 갯벌 회복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부키요씨는 “어민들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복잡한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뜻있고 양심 있는 변호사들의 무료 변론, 시민 환경단체의 지원이 있었다”면서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어민들이 해상시위, 법정다툼 등 수문개방 운동에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했다”고 전했다.

법정 소송이든, 해상 시위가든 간척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어민들의 결심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어업인들을

규합해 이사하야 간척사업의 주체인 정부 당국을 상대로 수문 개방을 요구하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노부키요씨는 “어민이 승소했다가, 정부가 다시 이겼다가 이런 간척지 농민들까지 소송에 가세해 그 끝을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며 “오죽했으면 올해 초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는 정부, 어민, 농민 등 3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노부키요씨는 특히 간척사업과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비교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본이 해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자연 해안이 개발되지 않고 보전됐다면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원자력발전소까지 그대로 오지 못했을 테고 사고 피해도 그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사고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일본이 터는 농지가 부족한 것도, 수문을 연다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원이 있었다”면서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어민들이 해상시위, 법정다툼 등 수문개방 운동에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했다”고 전했다.

법정 소송이든, 해상 시위가든 간척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어민들의 결심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어업인들을

/나가사키(규슈)=김형호기자 khh@



이사하야 방조제 수문의 모습(왼쪽)과 수문 개방을 요구하며 선상 시위에 나선 어민들.



/최현배기자 choi@·인터넷 캡처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경매 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 상가건물</p> <p>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 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p>	<p>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p> <p>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p> <p>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p> <p>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접</p>
<p>매매 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 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p> <p>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p> <p>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p> <p>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